

中世國語의 依存名詞 研究

金 泰 琨*

目 次

I. 序 論	3. 마
II. 本 論	4. 줄
1. 中世國語의 依存名詞 目錄	III. 結 論
2. 것	

I. 序 論

소위 '依存名詞'라는 文法用語는 학자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不完全名詞, 形式名詞, 안용근이름씨, 맏이름씨 등이 그것이고, 이밖에도 準自立名詞, 補文名詞 등의 명칭이 언급되고 있다.

이 중 널리 쓰이고 있는 '不完全名詞'는 단독으로는 개념표시가 不完全하여 앞에 修飾語가 있어야 한다는 데서 나온 말로 '完全名詞'의 對가 되고, '形式名詞'는 實質的인 의미가 없다는 데서 나온 말로 '實質名詞'의 對가 되며, '依存名詞'는 自立性이 없다는 데서 나온 말로 '自立名詞'라는 말의 對가 된다.

이 중 文敎部制定 用語는 '完全名詞-不完全名詞'를 쪽 써오다가 1985年度에 改定된 학교문법에서는 '自立名詞-依存名詞'의 用語를 취하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소위 '依存名詞'가 단독으로는 自立性이 없고 앞에 修飾語가 와야 한다는 要件性和 形態素의 분류에서 '自立形態素-依存形態素'의 用語가 쓰임에 비추어 '依存名詞'라는 用語를 사용한다.

依存名詞가 단독으로는 實質的인 의미가 없고 自立性이 없어서 앞에 修飾語가 와야만 의미가 확연해진다고 해서 依存名詞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상황과 文脈에 따라서

* 師範大學 專任講師

달라질 수 있는 여러가지 多樣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예를 들어,

어제 먹은 것이 상했었나 보다.

에서 ‘것’은 ‘음식, 밥, 떡, 우유……’ 등으로 代置할 수가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依存名詞가 가리키는 의미는 상황이나 文脈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曖昧模糊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

현대국어에 대한 이러한 依存名詞의 意味分析은 金斗應(1983)²⁾, 李周行(1983)³⁾ 등에서 다루어졌고 여러 관계논문에서도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依存名詞의 意味分析을 옛날 諺解本 문헌을 통해 고찰하여 쓰임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現行 依存名詞는 先行語의 選擇制約이 있고, 先行語尾의 時制에 따라 選擇制約이 있기도 하고 의미도 달라지기도 한다.⁴⁾ 그리고, 現行 依存名詞는 ‘것’을 제외하곤 특수한 用言하고만 共起(cooccurrence)한다. 이러한 점이 中世國語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본고에서는 옛날에 쓰였던 依存名詞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소위 普通依存名詞에 속하는 것 중 현대국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서 ‘것’ ‘바’ ‘줄’을 대상으로 考察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引用된 문헌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

- 歌曲 : 歌曲源流
- 警民奎 : 警民編 奎章閣本
- 警民東 : 警民編 東京教大本
- 老諺 : 老乞大諺解
- 杜初 : 杜詩諺解初刊本
- 朴諺 : 朴通事諺解
- 顯老 : 顯譯老乞大
- 顯小 : 顯譯小學
- 釋 : 釋譜詳節
- 宣小 : 宣祖版 小學諺解
- 十九史 : 十九史略諺解
- 隣大 : 隣語大方
- 捷蒙 : 捷解蒙語

1) 成光秀, “소위 不完全名詞에 대한 몇가지 檢討” 「語文學」 33집, 韓國語文學會, 1975, p.190. 成光秀(1975)는 일정한 한 가지 主意(primary meaning)를 꼬집어 낼 수가 없다 뿐이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다른 말로 代置할 수 있다고 했다.

2) 金斗應, “불완전명사의 의미분석” 「국어교육」 44·45합병호,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1983.

3) 李周行, “不完全名詞에 대한 研究” 「국어교육」 44·45합병호,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1983.

4) 권재일, 「국어 복합문 연구」, 集文堂, 1985, pp.76~77.

II. 本 論

1. 中世國語의 依存名詞 目錄

高永根(1982)는 中世國語에서 依存名詞로 起論될 수 있는 것을 46개 항목⁵⁾으로 分類한 다음, 依存名詞로만 쓰인 것을 언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간(분수) ② 것 ③ 껏(성질) ④ 곧(줄) ⑤ 궈(께) ⑥ 녁(方向) ⑦ 닛(탓) ⑧ 드(줄, 것, 까닭) ⑨ 쓰롬 ⑩ 도 ⑪ 터 ⑫ 대(바) ⑬ 덜 ⑭ 동(등) ⑮ 디 ⑯ 바 ⑰ 분 ⑱ 원 ⑲ 손터 ⑳ 스(줄, 것) ㉑ 슛(사이) ㉒ 앓(바, 까닭) ㉓ 양 ㉔ 이 ㉕ 자히 ㉖ 적 ㉗ 줄 ㉘ 히(것, 해)

許雄(1975)는 위의 28개 目錄 중에서 “궈, 도, 손터, 슛, 자히, 히”를 넣지 않은 반면 “전츠, 마장, 만, 다”를 넣어 依存名詞로 다루고 있다.⁶⁾

위의 目錄들을 살펴보면, 現代國語의 依存名詞보다 尙古적으로 훨씬 劣勢⁷⁾에 있음을 알 수 있어, 現行 依存名詞의 상당수가 後代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現代國語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依存名詞 ‘수’와 ‘터’만 보더라도, 이들은 中世·近代國語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開化期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下例) 表記法의 保守性을 고려할 때 이들 말이 19세기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많다.

- ㉑ 그원으로 我家라 홀 슈업스니(國民小學독본 5a)
- ㉒ 世界萬國 스이도 다 그릿치 못홀 슈업느니라(同 7a)
- ㉓ 그 苦狀이 形容홀 슈업스나(尋常小學 1:8b)
- ㉔ 今日에 만다시 富榮 홀 터이라 히니(國民小學독본 35a)
- ㉕ 移民 히라는 貌樣을 보고 어디 갈 터이뇨 무르니(尋常小學 1:10a)

2. 것

依存名詞 ‘것’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다. 現代國語는 말할 것도 없고 中世國語에서도

5) 高永根, “中世語의 形式名詞에 대하여” 『語學研究』18-1, 서울大 語學研究所, 1982, pp. 83~84. 語彙가 同一形態이나 의미가 다르면 따로 분류했다. 그리고, 소위 數單位 依存名詞는 起論하지 않았다.

6) 許雄,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75, p. 300.

7) 現代國語에서 依存名詞를 권재일(1985)는 69개로, 李周行(1984)는 49개로 분류했다. (數單位 依存名詞는 제외)

李周行(1984)는 1984년 12월에 있는 제11회 국어학회 공동연구 발표회의 연구발표 유인물 “不完全名詞에 대한 研究(I)”을 말한다.

위의 用例를 보면 ‘것’은 물건, 재물, 음식, 편지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代用하고 있음이 對比와 文脈을 통해 드러나고 ‘것’의 발달을 알 수 있다.

3) ‘글자’의 의미와 規定의 기능

- ㉞ 나드톨 미조차 고티며 일흠 둔 거슬 다시 고탓다가(翻小 7:29b)
나들은 조초 고티며 일흠 둔 즈를 여러번 기억흠(宣小 5:62a)
- ㉟ 세간에 쓰는 거슨 한말(漢語)이니(老諺 上 5a)
- ㊱ 우리 이 高麗人 말소은 다른 高麗人 사해만 쓰는 거시오(翻老 上 5b)

여기서 ‘것’이 글자, 말[言] 등을 代用하고 있는데 ㉟의 경우는 規定의 文法的 기능을 하고 있다.

4) ‘사람’의 의미

- ㉞ 텃하엿 경박흔 거시 드외리니(翻小 6:15a)
天下윗 輕薄子 | 되리니(宣小 5:14a)
- ㉟ ㄱ르쳐도 어디디 몸흐는닌 어린 것 아너 엇더니리오(翻小 6:29a)
ㄱ르쳐도 또 어디디 몸흐이 어린이 아니오 므섯고(宣小 5:27a)
- ㊱ 만일에 덩절 일흔 거슬 겨집 사마(翻小 7:35a)
만일 節 일흐니톨 어더(宣小 5:67a)

위의 用例를 보면 輕蔑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것’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현대국어와 같다. 현대국어의 예문을 보자.

- ㉞ 공부도 못하는 것이 멧은 들어서.....
- ㉟ 못된 것이 생사람 잡는구나.

위 예문에서 ‘것’은 경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 쥬부는 현령을 돕는 거시니 쥬부의 ㅎ고져 ㅎ는 바톨(宣小 5:57b)
主簿란 관원은 懸命을 돕는 거시니 主簿의 ㅎ고져 ㅎ는 이톨(或問簿佐令者也 簿所欲爲) (翻小 7:24b)

위의 用例는 두 가지 뜻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하나는 ‘主簿란 관원은 縣命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 代用的인 의미로 쓰였고, 다른 하나는 ‘主簿란 직책은 縣命을 돕는 것’이라는 規定을 설명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자로 봄이 타당하다. 翻小에서 ‘主簿란 관원’을 보면 알 수 있고, 漢文原文과 이 문장 위의 文脈을 보면 그러하다. 그러니까 문헌상으

로는 ‘것’이 옛날에 輕蔑의 의미로 쓰이지 않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輕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것’이 쓰이지 않는다.

교감은 교장을 놓는 것이니

하고 말하면 어색한 것이 된다.

5) 說明의 기능

㉠ 이에 어디롭이란 거슨 吉흥을 닐옵시오 어디디 묻흥이란 거슨 凶흥을 닐옵인 줄을 알디니라(宣小 5:27a)

이럴서 어디니는 吉이라 닐옵시오 어디디 묻흥니는 凶이라 닐옵미니라(是知善也者 吉之謂也 不善也者 凶之謂也) (顯小 6:29a)

㉡ 凶흥 사르미란 거슨 말스미 詭譎 호고(顯小 6:31a)

凶흥니는 말슴이 詭 호고 譎 호며(凶也者 語詭譎) (宣小 5:28b)

㉢ 일히란 거슨 증승을 자바 제 호고 슈달이란 거슨 고기를 자바 제 호야(豺類) (顯小 7:6b)

위의 用例의 ㉠㉡㉢의 ‘것’은 앞에 표현된 내용을 하나로 묶어 說明하기 위해 쓰여진 말이다. ㉢은 原文「豺類」를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으로 일히 [豺]와 슈달[類]을 설명하기 위해 ‘것’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6) 疑問代名詞의 기능

㉠ 므스거슬 언디 묻호며 호고져 호면 므스거슬 일우디 묻호리오(顯小 8:20a)

므어슬 求호여 언디 묻호며 므어슬 호고져 호여 일오디 묻호리오마는(宣小 5:99a)

㉡ 정스 호요매 므스거시 어려우료(顯小 9:53b)

㉢ 큰형의 姓이 므스거신고(老諺 上 40a)

지금 사용되고 있는 代名詞 ‘무엇’은 中世國語에서는 ‘므슈’과 ‘므스것’으로 쓰였다. ‘므스것’은 ‘므스(관형사)+것(의존명사)’의 구조이다. 위의 用例 ㉠을 보면 顯小에서는 ‘므스것’이 쓰였으나 後代 문헌인 宣小에서는 ‘므엇’으로 쓰여 語彙變遷을 엿볼 수 있다.

7) 推定, 意圖, 推斷의 기능

‘-리것’으로 쓰여 推定の 뜻이 있으며 옛 문헌에서 ‘-리-’와 대응한다.

㉠ 비흥은 모롬에 안정호야사 홀 거시오 지조는 모롬에 비화야 홀디라(宣小 5:15b)

- 비호민 모로매 안경하야사 하리오 지조는 모로매 비화사 하리니(翻小 6:16b)
- ㉠ 그 가히 므더니 너길것가(宣小 5:33a)
 그 가히 므더니 너기려(翻小 6:35b)
- ㉡ 제 몸을 제 해흔다 니를 거시로다(翻小 9:82b)
 可히 스스로 해흔논이라 널으리로다(宣小 6:76b)

‘-르것’은 未來事實에 대한 豫상, 推定, 의도, 未定, 미완료 등을 가리킨다.⁹⁾ 현대국어에서 ‘-르것’은 곧잘 ‘-겠-’과 對比하여 論議하곤 하나 中世國語에서는 上例와 같이 ‘-리-’와 對比하여 表現된다. 지금도 ‘-리-’ 形態素가 쓰이기는 하나 이때는 옛말스럽고 낱말스럽다.

- ㉢ 그가 이 사과를 먹을 것이다.
 ㉣ 나는 기어이 거기에 갈 것이다.

여기서 ㉢은 推定을, ㉣은 意圖를 나타낸다. ㉣이 意圖를 나타내는 것은 副詞 ‘기어이’의 작용이 큰 것 같다. 위에서 든 中世國語 用例는 모두 推定을 가리키고 있지만 다음의 用例는 推斷(추측하여 판단함)의 뜻으로 보인다.

- 은혜며 원슈를 分明히 홀 것이라 하논 이 네 즈논(宣小 5:95b)
 ○ 은덕이며 원슈를 分明히 하라하논 이 네 직(翻小 8:15b)

한편, ‘-르것’은 ‘-르디’와 對比하여 表現되고 있다. 그런데, ‘-르바이다’는 쓰일 수 없는 말이므로 이것은 ‘-르것이다’에 대응하지 못했다. 아래 用例를 보자.

- ㉤ 이제 술로 敗亡한 사롬을 歷歷히 허여 다 기디홀 거시니라(翻小 6:23b)
 이제 기우러더 敗하니를 歷歷히 다 기록홀디니라(宣小 5:22a)
- ㉥ 모로매 집 얼우늬게 무러 홀 거시니라(翻小 7:1a)
 반드시 집 얼우늬게 무러 취품홀디니라(宣小 5:35a)
- ㉦ 이를 적게 호모로 옷드물 사물 거시니라(翻小 7:27b)
 일을 적게 홈오로써 근본을 삼올디니라(宣小 5:60b)

위의 用例에서 ㉤의 ‘-르것’은 ‘意圖’, ㉥의 그것은 ‘推斷’을 뜻한다. ㉤의 그것이 ‘意圖’를 가리키는 것은 文脈과 副詞 ‘歷歷히’를 고려할 때 그러하다.

8) 現在·過去事實

9) 崔圭一, “한국어 [것]의 意味機能과 用法” 『論文集』20집, 濟州大, 1985, p.120.

- ㉞ 말 함이 모든 사물의 썩리는 거시라(蘇小 6:24a)
말 함이 모든의 썩(忌)는 배라(宜小 5:22b)
- ㉟ 스스로 슬피디 문항야 어든 거슨 터럭 근만흔터(蘇小 7:28b)
스스로 슬피디 문항야 어든 배 털억 글티오(宜小 5:61a)

未來事實을 나타내는 ‘-근것’이 ‘-리-’ ‘-근디’와 대응하는 데 비하여 현재나 과거사실을 나타내는 ‘-(으)ㄴ/는것’은 ‘바’와 대응되고 있다. 특히 ㉞에서 ‘바’가 쓰인 까닭은, 叙述格助詞가 붙은 ‘바이다’는 先行語 語尾가 ‘+(으)ㄴ, -는’인 경우 즉, 과거나 현재시제와 共起하는 것이지, 미래시제(- (으)ㄴ)하고는 共起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 p.11 참조)

이상에서와 같이 ‘것’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것’은 일, 물건, 사람, 문자와 같은 구체적인 어휘를 代用하고 있으며, 說明, 推定, 推斷, 代名詞, 現在·過去事實 등의 文法的인 기능을 하고 있다.

3. 바

‘바’에 대하여 李熙昇편 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바 : 다른 말 아래에 붙어서 方法 또는 일이란 뜻으로 쓰이는 말.

여기서 ‘바’는 ‘方法’ ‘일[事]’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는 文脈에 따라 多樣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다음의 例文을 통해 알아보자.

- ㉠ 철수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방법)
- ㉡ 사장은 근로자가 할 바를 정해 주었다. (일)
- ㉢ 우리는 그가 주장하는 바를 들었다. (내용)
- ㉣ 우리는 거기서 느낀 바가 많았다. (사실, 내용)
- ㉤ 업자한테 받은 바를 모두 내놓아라. (물건, 돈)
- ㉥ 나는 미안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곳)
- ㉦ 그녀는 자신이 품고 있는 바를 말했다. (심정)
- ㉧ 사람은 노력한 바만큼 보상 받아야 한다. (분량)
- ㉨ 너희가 그 문제를 걱정할 바 아니다. (처지)
- ㉩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설명한 바입니다. (까닭, 所以)

위에서 依存名詞 ‘바’는 ‘방법’ ‘일’ ‘내용’ ‘사실’ ‘물건’ ‘곳’ ‘심정’ ‘분량’ ‘처지’ ‘까닭’ 등의 의미를 代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中世國語에서 ‘바’가 쓰이는 前後 環境資質을 살펴보자.

- ㉗ 민든 바에(宣小 6:100b)
- ㉘ 묻하논 바는(同 6:90a)
- ㉙ 업는 바를(同 6:17b)
- ㉚ 일우는 밧 도리(同 6:12b)
- ㉛ 行하논 바와(同 6:123b)
- ㉜ 求하논 배나라(同 6:50a)
- ㉝ 믿고 사랑하논 바드려(同 6:82a)
- ㉞ 하올 배(同 6:120a)

위의 用例를 보면 先行語 어미로는 ‘-ㄴ, -논, -군’과 共起관계에 있어 현대국어와 다를 바 없으나, ‘바’에 後行하는 조사는 ‘드려’가 쓰임이 특이하고, 관형격 ‘-의’ 대신에 ‘-入’이 쓰였다. ‘드려’는 현재는 ‘-더러’로 쓰이는데 ‘-더러’는 사람을 지칭하는 체언 다음에 쓰인다. 後述하겠지만, 이것으로 보면 中世國語에서 ‘바’는 사람을 뜻하는 意味資質(meaning feature)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바’는 ‘것’보다 쓰이는 빈도수가 훨씬 적지만 옛날 문헌을 보면 오히려 ‘바’가 더 많이 쓰인 느낌이 든다. 그것은 漢文으로 된 原文에 ‘所’의 번역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바’를 넣어 이야기를 하면 약간 옛말스럽기도 하고 글말스럽다는 지적도 있다.¹⁰⁾ 그러면, 中世國語에서 依存名詞 ‘바’가 어떠한 意味로 쓰였나를 살펴본다.

1) ‘곳, 데[場所]’의 의미

- ㉗ 病亂취 업디 아니 하야 인논 배며 다돈논 바를 조차(宣小 5:4a)
病亂취 업디 아니 하야 간 터며 다드론 터마다(顯小 6:4a)
- ㉘ 그 법이 大抵 혼디 翰林學士 宗諤의 민든 바에 난이라(宣小 6:100b)
그 법은 대더 혼디 翰林學士 벼슬 하엿던 宗諤의 민드론 터셔 나니라(顯小 9:108b)
- ㉙ 또 잇논 바를 조차 기러 죽음애 니르러(宣小 5:3a)
- ㉚ 잇는 바에 모올히 일고 두히만의 고올히 일고(+九史 1:16a)

지금도 ‘바’가 장소의 뜻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인다.

- ㉗ 영철이가 갈 바를 몰라 헤멘다.
- ㉘ 몸 둘 바를 모른다.
- ㉙ 비할 바 없는 권력을 가졌다.

10) 염선모, “불완전명사에 대하여” 『徐炳國博士頌壽論集』, 螢雪出版社, 1979, p.216.

위의 예문은 ㉠은 金斗應(1983: 604), ㉡과 ㉢은 염선모(1979: 216)에서 인용한 것인데 ㉠은 잘 쓰이지 않은 듯이 보이며, ㉡ ㉢은 관용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中世國語에서는 위의 用例에서와 같이 확연한 장소의 의미로 ‘바’가 쓰였다. 이 ‘바’는 원래 字典類에서 장소의 의미로 訓을 달아 쓰였음에서 알 수 있다.

所: 바소, 처소소(字典釋要)
 : 바소, 곳소(千字文)

2) ‘일[事]’의 의미

- ㉠ 또 곧오더 그 어던 바를 닐으며 그 어던 바를 行하며(宣小 5:31a)
 또 ㄱ로더 어던 이를 니르며 어던 이를 行하며(翻小 6:33b)
- ㉡ 다뎡 효도하기를 비호는 배니(宣小 6:7a)
 어버이를 효도함을 비호는 이리니(翻小 9:8a)
- ㉢ 맛당히 삼갈 배 음간하는 일 ㄱ튼니 업스니(警民奎 15a)
- ㉣ 맛당히 삼갈 이리 남진계집 언논일만 하니 업스니(警民東 15a)

위의 用例에서 ‘바’는 原文의 ‘所’를 번역한 것인데 翻小에서는 ‘일’로 번역했으나 宣小에서는 ‘바’로 번역해 번역자의 文體에 대한 態度差異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일’이라는 어휘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 依存名詞 ‘바’가 일정한 主意(primary meaning)가 없는 것에 못지 않다.¹¹⁾

이 ‘바’가 ‘일’에 對比되듯이 ‘것’과도 對比되어 일정한 主意가 없는 일부 依存名詞—것, 바, 출, ㄷ, 소, 이, ㄷ 등등—의 特性에 맞게 서로 넘나들며 쓰였다. 小學諺解에서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문져 모름이 배 學을 향는 배 므스 일인고(宣小 5:112a)
 문져 모로매 배곰 비호는 거시 므스 이린고(翻小 8:33b)
- ㉡ 스스로 슬피디 문하야 어든 배 털어 글티오(宣小 5:61a)
 스스로 슬피디 문하야 어든 거슨 터럭 글만 향더(翻小 7:28b)
- ㉢ 말 함이 모든의 썸는 배라(宣小 5:22b)
 말 하미 모든 사롬의 썸리는 거시라(翻小 6:24a)

3) ‘말[言]’의 의미와 所以 및 規定의 기능

11) 李熙昇편 국어대사전에서는 ‘일’에 대하여 17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여 놓았다.

- ㉠ 진실로 東宮의 넘으는 바 곧냐(宣小 6:42b)
진실로 太子의 니로논 말와 곧냐(顯小 9:46b)
- ㉡ 다못 물윗 니르는 바를(宣小 6:123b)
물윗 니르는 말와를(顯小 10:25b)
- ㉢ 그 벼 몸을 다스린 후에 사롬을 다스릴 바를 널오더라(宣小 6:9a)
- ㉣ 날호에라 호는 호 즈는 내 듣디 못호엿던 배로소이다(宣小 6:48b)
- ㉤ 벼 馬援의 글월이 殷動히 모든 즈대를 경계호 배니라(宣小 5:24a)

위의 用例에서 ㉠~㉤은 ‘바’가 ‘말’을 代用했는데 니르다 [謂]와 함께 ‘바’가 쓰이고 있어 그것의 의미가 確然히 드러난다. 여기에 비하여 ㉢과 ㉣의 ‘바’는 다른 文法的인 기능을 갖는다. ㉢의 경우는 ‘規定’의 의미기능이, ㉣의 경우는 ‘所以’의 의미기능이 있다는 것을 文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規定과 所以의 결정은 前後文章을 검토한 文脈에 의해 내려진다. 아래 例文을 보자.

- ㉠ 여러분이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 ㉡ 그런 말은 내 알찌기 듣지 못하엿던 바입니다.

위에서 ㉠은 ‘所以’를, ㉡은 ‘規定’을 가리킨다.

한편, ‘바이다(라)’ 앞에는 未來時制 ‘-(으)르’이 올 수 없다. ‘바’가 未來時制語尾와 共起할 수 있으나 ‘바’에 敘述格助詞 ‘이다(라)’가 後行하면 ‘-(으)르’과의 共起는 불가능하다.

*나는 내일 서울에 갈 바입니다.

그러므로, ‘所以’나 ‘規定’이 현재나 과거사실이기 때문에 ‘-(으)르 바이다.’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다.

4) ‘사람[시]’의 의미

- ㉠ 廣의 子孫이 그 형대에 늘근 사롬廣의 믿고 사랑호는 바드려 그만이 널리 쏘오터(宣小 6:82a)
廣의 즈손이 그 형대 통에 늘근 사롬과 廣의 사랑호는 사롬드려 그만이 널리 쏘오터(顯小 9:88b)
- ㉡ 孝芬等이 아줌이 李氏를 위와도터 나흔 바를 섬굄곧터 호야(宣小 6:87b)
孝芬이 들히 아줌이 李氏를 위와도터 나흔 아버지 섬굄그티 호야(顯小 9:94a)
- ㉢ 그 더불어 말호는 배 다 下等人 사롬이라(宣小 5:11a)
그 드려 말숨 호는너는 다 하등엿 사르미라(顯小 6:11b)

위의 用例에서와 같이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바’가 ‘사람’을 代用하기도 한다. 위에서 ‘바’가

文脈을 통해 사람을 지칭함이 드러나는데, 특히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러’의 現語는 ‘-더러’이다. 이 ‘-더러’는 사람을 의미하는 體言 다음에 쓰이는 助詞이다. 그런데, 現行 ‘바’는 ‘사람’을 代用하는 의미는 없으므로 現行 ‘바’는 下例와 같이 ‘-더러’와 共起는 불가능하다.

* 철수는 함께 식사하는 바더러 술을 권했다.

그러나, ㉠에서 보듯이 中世國語에서는 ‘사람더러’의 뜻으로 ‘바더러’가 쓰였다.

5) ‘마음 [心]’의 의미

㉡ 能히 디키디 못하논 바를 디키며(宣小 6:68a)

느리 묻 가지는 마음을 가져 이시며(職小 9:73b)

㉢ 故國에 平時에 사던 짜홀 사랑하논 배 이쇼라(杜初 6:8a)

㉣ 마음을 어글우쳐 구차히免흠은 臣의 願하논 배 아니닝이다(宣小 6:44a)

위의 用例의 ‘바’는 文脈을 통해서만 ‘마음, 心情’을 代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줄

먼저 現行 依存名詞 ‘줄’에 대하여 의미와 특성을 알아보고 본고의 연구대상인 中世國語에서의 그것을 고찰한다.

우선 국어사전에 실린 ‘줄’에 관한 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줄: 용언 아래에 쓰이어 어떤 방법이나 셈속, 사태, 사실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신기철·신용철편, 새우리말 큰 사전)

여기서 依存名詞 ‘줄’의 의미가 드러나지만, 원래 依存名詞는 文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법이어서 실제로는 辭典에 풀이된 것 이상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中世國語 문헌을 통해 고찰하기로 한다.

그런데, 中世國語의 依存名詞 ‘줄’을 고찰하기 전에 현대국어에서의 ‘줄’의 특성을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줄’은 先行語 語尾 -(으)ㄴ, -는, -(으)ㄹ 아래에서 쓰인다.

㉤ 철수가 서울 간/ 가는/ 갈 줄 알았다. (狀況認識)

㉥은 ‘줄’이 ‘狀況認識’을 뜻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先行하는 時制語尾와 共起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¹²⁾

㉠ 영희는 피아노를 *친/*치는/칠 줄 모른다. (方法)

㉠의 ‘줄’은 ‘方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過去時制와 現在時制 語尾와는 共起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後行하는 用言 ‘알다’ ‘모르다’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다음의 예문과 위에서 든 예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 철수는 혼자서 서울에 *간/*가는 걸 줄 안다. (方法)

㉢ 우리는 영희가 피아노를 친/치는/칠 줄 몰랐다. (狀況認識)

이상의 예들에서 보듯이 ‘줄’이 ‘方法’의 의미나 ‘狀況認識’의 의미나에 따라서 先行하는 時制語尾의 共起관계가 결정된다. (권재일 1985:75 참조)

방향을 바꾸어 依存名詞 ‘줄’이 後行하는 用言과의 共起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대국어에서 ‘줄’은 認識을 나타내는 動詞와 共起를 하는데, ‘알다’ ‘모르다’가 주종을 이루고, 이들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기억하다, 느끼다, 믿다, 보다, 생각하다, 여기다, 예견하다, 짐작하다’ 등등과 共起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 나는 네가 철수인 줄로 기억한다.
- ㉤ 나는 철수가 기분이 좋은 줄로 느꼈다.
- ㉥ 나는 철수가 성공할 줄로 믿었다.
- ㉦ 나는 네가 꽃을 꺾은 줄로 보았다. (‘생각했다’의 뜻)
- ㉧ 나는 네가 서울 간 줄로 생각했다.
- ㉨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른 줄로 여겼다.
- ㉩ 나는 철수가 올 줄은 예견했다.
- ㉪ 나는 네가 밥을 먹은 줄로 짐작했다.

이와같이 現行 ‘줄’은 소위 認識動詞하고 共起관계에 있는데 代用言 ‘하다’와도 함께 쓰이기도 한다.

「예,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또 대학교 선생님 줄 했수. 특허문 그 민속인가 뭔가 조사한답시고……」 (『현대문학』 370호, p.144.)

여기서 ‘하다’는 ‘알다, 생각하다, 여기다……’ 등으로 代置할 수 있는 代用言이다. 이러한 경우는 話者와 聽者가 상황장면을 잘 알고 있는 對話體의 경우어나 가능하다. 다음의 예문은 非文이 된다.

12) 李翊燮·任洪彬, 『國語文法論』, 學研社, 1983, p.280.

*나는 그녀의 키가 큰 줄 했다.

이제 ‘줄’이 中世國語에서 어떠한 後行하는 用言과 共起하고 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줄’의 意味資質을 검토할 차례다.

1) ‘알다’와 共起

- ㉞ 문디 아니 하여서 胡公인 주를 알리라(麟小 9:11b)
- ㉟ 엇디 이 도흔 사롬 아니완흔 사롬인 줄을 아라(老諺 上 43a)
- ㊱ 히 치운 후에야 슬과 즉빅의 후에 디는 줄을 아느니(宣小 6:68b)

위의 用例에서 보면 先行하는 語尾가 ‘-ㄴ’(㉞㉟)이나 ‘-는’(㊱)인 경우에 ‘줄’이 ‘사실’을 뜻한다.

- ㊲ 이제 비홀 사르미 만이레 능히 이리 홀 주를 알면(麟小 6:9a)
- ㊳ 父母| 다몬 깃븐 줄만 알오(麟小 9:51b)
- 父母| 다몬 깃거홀 줄만 알오(宣小 6:47a)

위의 用例는 ‘줄’이 ‘方道’를 나타내는데 先行하는 語尾가 ‘-ㄴ’일 경우이다.

2) ‘모르다’와 共起

- ㉞ 이맛긔 제 썩로 썩 엇는 곳이 잇는 줄을 내 모로노라(捷蒙 3:7a)
- ㉟ 그곳에 杏花| 저 날리니 아무덴 줄 물너라(歌曲 64)
- ㊱ 우리들은 아무란 줄도 모로노터(麟大 3:12b)

현대국어에 비하여 ‘줄’에 共起하는 ‘모르다’는 현저히 쓰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줄’에 後行하여 쓰일 수 있는 用言이 현대국어에 비하여 中世國語에서는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보다’와 共起

- ㉞ 須達의 버릇업순 주를 보코(釋 6:21a)
- ㉟ 진실로 그 하는 이리 쉽디 아니흔 주를 보시면(麟小 7:4a)
- ㊱ 다 가면 더 人家| 사롬이 만흔 줄을 보면(老諺 上 42a)
- ㊲ 월병이 오 멸하는 줄를 보리라(十九史 1:74a)

여기서 ‘줄’은 ‘보다’의 對象이므로 光景, 모습 등을 代用하고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줄’은 ‘보다[視]’와 共起하지 않으며, 쓰인다 해도 ‘視’의 뜻이 아니라 ‘看做’의 의미이다.

너는 내가 밥을 먹은 줄로 보았지?(看做)

3) ‘듣다’와 共起

- ㉠ 齊 사람이 그 어딘 줄을 듣고 배 정승을 삼은디(十九史 1:76b)
- ㉡ 두명독과 순화의 주겨 죽은 줄로 드르시고(十九史 1:94b)

여기서 ‘줄’은 ‘듣다[聽]’의 對象인 말[言], 所聞 등을 代用하고 있다.

5) ‘너기다’와 共起

- ㉠ 衰 | 제 아버지 아년 이래 주근 주름 설이 너겨(顯小 9:26b)
- ㉡ 祿과 利에 드라드느 줄을 병도이 너기더니(宣小 6:8b)

여기서 ‘줄’은 ‘處地’ ‘狀態’ 등을 代用하고 있다.

6) ‘니르다[謂]’와 共起

- ㉠ 썰론 주를 니르니라(釋 6:2a)
- ㉡ 或이 그 너무 조븐 주를 니르대(宣小 6:127a)
- ㉢ 내 몸은 다스릴 후에야 놉 다스릴 주를 니르더라(顯小 9:9b)

여기서 ‘줄’은 ‘뜻’을 代用하고 있다. 이는 ‘니르다’의 對象이 ‘뜻’이 초가 되기 때문이다.

7) ‘업다[無]’와 共起

현대국어와는 달리 中世國語에서는 ‘줄’이 ‘업다’와 共起하여 대단히 많이 쓰였다. 특히 釋譜 詳節에서 많이 나타난다.

- ㉠ 有情의 풀 거시 다 날본 줄 업기 호리라(釋 9:5a)
- ㉡ 나도 이 말슴 닐은 줄 업소니(顯小 9:46b)
- ㉢ 이 유무에 썩시미 아미란 조셔흔 줄이 업다(老諺 下 3b)
- ㉣ 당당이 이 싸해 橫死홀 주리 업스며(釋 9:22a)
- ㉤ ㅎ다가 相 여윈 修行 아니면 이에 니르를 쫓이 업스니라(金剛解 87b)

- ㉞ 뭉고 조티 아니면 뜨들 불굴 주리 업고(翻小 6:16a)
- ㉟ 비흠곳 아니면 지조를 너푼 주리 업고(翻小 6:16a)

위의 用例에서 ㉞~㉟은 ‘줄’이 ‘事實, 狀態’를 가리키고, ㉠㉡은 ‘까닭’을 가리키며, ㉢㉣은 ‘方道’를 가리킨다. 여기서 ‘줄’이 ‘事實, 狀態’의 뜻일 경우 先行하는 語尾가 ‘-ㄴ, -ㄴ’이고, ‘까닭, 方道’일 경우는 ‘줄’의 先行하는 語尾가 ‘-ㄴ’이다.

8) ‘있다[有]’와 共起

- ㉠ 얼우니 옷바블 골오 아니호는 주리 이시며(翻小 9:97a)
- ㉡ 반드시 도올 주리 이실 도 호나라(翻小 6:8a)
- ㉢ 千萬年 風雨를 만난들 기을 줄이 이시라(歌曲 5)
- ㉣ 귀밧헤 히 목은 서리야 녹을 줄이 이시라(歌曲 15)

위에서 ㉠은 ‘줄’이 ‘까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전체적인 文脈을 보아서 그렇고, 原文「由尊長衣食或有不均」의 ‘由’를 고려해 볼 때 그러하다. ㉡~㉣은 ‘줄’이 ‘경우, 일[事]’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줄’에 先行하는 語尾가 ‘-ㄴ, -ㄴ’일 때는 ‘까닭’의 뜻이며, ‘-ㄴ’일 때는 ‘경우, 일’의 뜻을 나타낸다.

古時調에서 ‘줄’은 ‘있다(이시다)’와 共起하여 상투적으로 매우 많이 쓰였다. 주로 否定의 답을 요구하는 이른바 說疑法이다.

9) ‘아니다’와 共起

- ㉠ 다보직 나미 불휘 업순 줄 아니언 마론(杜初 6:53b)
- ㉡ 내 너희를 재디 아니려 호는 줄이 아니라(老諺 上 43a)
- ㉢ 고티호며 외올만홀 줄이 아니라(宣小 5:4a)

위에서 ㉠㉡은 ‘줄’이 ‘까닭’을, ㉢은 ‘따름, 뿐’을 代用하고 있다. ㉢의 예문이 翻小에서는 ‘외올 썩르미 아니라(6:4b)’로 諺解되어 있음에서 더욱 그러하다.

10) 기타

- ㉠ 부츠아 네 월 사름이 네 아비 주긴 줄톨 니젓는다(十九史 1:72a)
- ㉡ 사르미 그리호는 주톨 무러늘(翻小 10:7b)
- ㉢ 조서ㅣ 왜 뜨디 아니호 줄은 붓그려 원망호다 호야(十九史 1:73b)
- ㉣ 祿 타 머그며 쉼호 이레 나사가는 주를 분별 호더니(翻小 9:9b)
- ㉤ 짐사르미 다 과꽃이 온 주를 놀라 호더라(翻小 9:31a)

- ㉔ 或 그 알음을 求티 아니 하는 줄을 괴롱하거늘(宣小 6:50a)
- ㉕ 지의 이시며 업슨 주를 헤아리디 마를디니(顯小 7:4a)
- ㉖ 업의 스랑홈이 세 적 울몸에 니르신 줄을 심각하야(宣小 5:9b)
- ㉗ 그 죄를 특별이 브러 어딘 줄을 나토아 내요미(顯小 9:47b)
- ㉘ 또 光明을 펴시니 이 病 업스산 주리라(釋 23:44b)

이상의 用例에서 보듯이 ‘줄’은 ‘닛다, 묻다[問], 붓그럽다, 분별하다, 놀라다, 괴롱[譏弄]하다, 헤아리다, 심각하다, 나토다, 이다’ 등과 함께 쓰일 수 있어 모든 用言과 共起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依存名詞 ‘줄’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현대국어에서 ‘줄’은 소위 認識動詞하고만 共起하는 데 비하여 中世國語에서의 ‘줄’은 後行하는 모든 用言과 共起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줄’의 前後環境資質은 先行語 語尾 ‘-(으)ㄴ, -는, -(으)ㄴ’에 後行하고, ‘줄’에 붙는 助詞는 ‘-이, -을, -이다(라), - ϕ ’과 特殊助詞 ‘-은, -만, -도’가 後行하다. 특히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主格, 主題格, 敘述格助詞가 ‘줄’에 붙어 활발히 쓰였다.

- ㉙ 草屋 좁은 줄이 그 더욱 더 分이라(歌曲 29)
- ㉚ 數 | 一千二百이며 八百 π 되는 주른 衆生의 世界는 器世界를 브터 잇는니(釋 19:9b)
- ㉛ 摩耶의 니러 合掌하시니 이 업디 아니하산 주리라(釋 23:44b)

Ⅲ. 結 論

지금까지 中世國語에서 쓰인 依存名詞 중 ‘것’ ‘바’ ‘줄’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中世國語의 依存名詞는 현대국어의 그것에 비하여 숫적으로 劣勢에 있는데 現行 依存名詞의 많은 것이 後代에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一例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依存名詞 ‘수’와 ‘터’는 中世國語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20세기초에 刊行된 開化期 教科書에서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考究의 대상으로 한 ‘것’ ‘바’ ‘줄’은 현재도 우리의 言語生活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依存名詞이지만 中世國語에서도 쓰였음 - ‘바’와 ‘줄’은 더욱 활발하고 多樣하게 -은 물론 現行 그것과 다른 면도 보여준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것

‘것’은 ‘일, 물건, 음식, 사람, 글자, 말[言, 事實] 등의 의미를 代用하고, ‘規定, 說明, 疑問代名詞, 推定, 意圖, 推斷’ 등의 文法的 기능이 있다.

2) 바

㉠ 現行 依存名詞 ‘바’는 ‘方法, 일, 內容, 事實, 물건, 곳, 心情, 分量, 處地, 까닭(所以)’ 등의 많은 의미를 가진 語彙를 代用하지만 ‘사람’을 代用하지는 않는다. 中世國語에서 ‘바’는 ‘사람’까지도 代用한다.

㉡ 현재는 ‘바’가 ‘것’에 비하여 頻度數로 볼 때 적게 쓰이고 있고, 老人이나 經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 옛말스럽고 글말스럽지만, 中世國語에서는 ‘바’가 더 많이 多樣하게 쓰였다.

3) 줄

㉢ 現行 依存名詞 ‘줄’은 소위 認識動詞하고만 共起관계에 있는 데 비해 中世國語에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用言과 共起한다.

㉣ 現行 依存名詞 ‘줄’이 붙는 助詞는 目的格助詞(-을)과 副詞格助詞(-로), 特殊助詞(-은, -도, -만)가 있지만 中世國語에서는 이것 이외에 主格助詞(-이)와 敘述格助詞(-이라)가 자유롭게 쓰였다.

㉤ ‘줄’은 ‘事實, 方道, 光景, 모습, 말(言), 所聞, 處地, 狀態, 뜻, 까닭, 경우, 일’ 등을 中世國語에서 代用한다.

Summary

A Study on the Bound Nouns of Middle Korean

Kim Tai-gon

This study examines the bound nouns used in Middle Korean focusing on *kos*, *pa*, and *cwul*.

The bound nouns of Middle Korean is inferior in numbers to those of Modern Korean. It can be reasoned that many of the current bound nouns come into existence Post-middle Korean.

The objects of this study, *kos*, *pa*, and *cwul*, are the representative bound nouns frequently used in modern life, which were also used widely and variously in Middle Korean. The results obtained here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Kos* can be taken the place of work, thing, food, man, language, fact, etc. 2) The fact that *pa* can be substituted for man in Middle Korean is the different fact from that of Modern Korean. 3) *cwul* can be co-ocured with only verbs of cognition in Modern Korean, but in Middle Korean it used to be co-ocured with all predicatives.